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3, pp. 145-152,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3.145

대학생을 위한 융복합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성 지식, 성 태도 및 생식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최원재[1], 박준혁[2], 이승원[3], 임종은[3], 정현철[4], 임영숙[5], 한숙정[4*]
[1]삼육대학교 SMART 재활연구소, [2]구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3]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4삼육대학교 간호학과, [5]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The Effects of Convergen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Wonjae Choi[1], Junhyuck Park[2], Seungwon Lee[3], Jongeun Yim[3], Hyeoncheol Jeong[4], Youngsook-Lim[5], Sukjung Han[4*]
[1]Institute of SMART Rehabilitation, Sahmyook University
[2]Dept. of Physical Therapy, Gumi University [3]Dept. of Physical Therapy, Sahmyook University
[4]Dep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5]Sahmy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융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108명의 대학생이(평균연령 20.84세) 생식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주 2회, 110분 동안 진행되었고 설문지를 통해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성 태도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유의하게 더 향상되었고 성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p<0.05$) 성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성 태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키고 성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추후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 대학생, 생식건강, 성 지식, 성 태도, 성 행동, 융복합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RHPP) affect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The students of 108 (mean 20.84 years) were participated in the RHPP, and this program was conducted to 110 min, twice a week for 4 weeks from November 9, 2016 to December 7. We investigated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by questionnaire. As the results, the sexual attitude was better than baseline, an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exual knowledge and th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p<0.05$). However, no significant changes in outcome measure were observed in the sexual knowledg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p>0.05$). We found that the RHPP improves the sexual attitude and correlate between the sexual knowledg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This study will be utilized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Reproductive health,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Convergence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Institute of health scienc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6
*Corresponding Author : Sukjung Han (hansj@syu.ac.kr)
Received January 24, 2018 Revised February 26, 2018
Accepted March 20,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1. 서론

인간에게 성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그 사람과 함께 존재하고 인간다움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 성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참다운 동료애가 될 수도 있고 성적 유희로 변질 될 수도 있다[2].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빠른 정보화 사회로 인해 생활 전반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누구나 손쉽게 성적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3]. 공적인 관계에서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풍토,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강압적인 입시제도에 따른 스트레스, 무한경쟁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요인이 대학생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불건전한 성문화를 조장하고 있다[4, 5].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대학 시절부터 성적활동이 활발해지고 이 시기는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기점이 된다. 대학생이 되면서 남성은 성적 교류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15-24세 사이에 경험하는 성관계는 미혼모, 성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후군과 같은 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7]. 김정애와 이정열(2014)의 연구결과에서 국내 대학생들의 성경험이 68.6%에 달하며 그 중 남학생은 71.5%, 여학생은 60.2%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8]. 신경림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은 77.6%로 나타났고 그 중 키스 및 포옹의 경험은 76.0%, 성관계 경험은 38.1%로 보고되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이 11.6%로 그 중 94.4%는 인공유산 경험이 있었다. 임신 중절에 따라 출혈, 요통, 복통, 빈혈과 같은 합병증이 17.5% 발생하였고 성병을 경험한 대학생도 7.1%였다[9].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AIDS)에 감염된 국내 환자는 2016년 11,439명으로 2015년 대비 8.9%의 향상을 보였다[10]. 비록 HIV의 유병률이 2016년 0.01%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계적으로 15세-24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11]. 청소년들은 성관계 중 일관되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성관계에 취약하기 때문에 HIV의 전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12]. 이와 같은 HIV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강조해 왔다[13].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올바른 성관계와 전염성 성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며, 성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성병예방을 저해한다[14].

성과 생식 건강은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젊은 성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만, 교육과 다른 사회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무시되어 왔다[15]. 국내에서도 올바른 성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중고 고육과정에 다양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서 이러한 성교육 운영 및 진행이 형식적이기 쉽다[16]. 실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75.6%였으나,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3.1%로 보고되었다[17].

성에 대해 빠르게 개방화되고 있는 현재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의 교육과 긍정적인 성 태도의 확립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며, 대학생 스스로가 생식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 욕구도는 피임법이 가장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피임법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대학생들의 생식건강 교육이 8시간으로 짧았던 제한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고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IRB:2-1040781-AB-N-01-2016090HR)는 서울 소재 S대학의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에 동의한 120명(남성: 40명, 여성: 80명)을 모집하였다.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주 2회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80%이상 이수하지 못한 12명은 탈락되었고 총 108명(남성: 38명, 여성: 70명)만이 사후 측정에 참여하였다.

2.2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주차 별로 피임, 연

애, 성 의식과 성 평등, 성 인권 및 생식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도입 10분, 전개 40분, 중간 휴식시간 10분, 심화 35분, 마무리 15분으로 총 110분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Table 1. Description of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Contents	Times	Topics
Introduction	10 min	First week · Contraception Second week · Love Third week · Sexual minority Fourth week · Sexual rights
Development	40 min	
Mid term rest	10 min	
Deepen	35 min	
Organization	15 min	

2.3 측정 도구

2.3.1 성 지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고경심 (2014)과 우근희 (2011) 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 지식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19, 20]. 성 지식은 피임지식을 말하고 피임법의 원리, 장단점, 사용방법 등 피임에 관련된 정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맞다', 1점, '틀리다' 0점, '모르겠다' 0점으로 계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2.3.2 성 태도

성 태도는 남녀의 구분 또는 남녀의 육체적 특성 등 대립적인 두 개의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남녀의 특성과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선민 (2009)의 성 태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21].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쾌락·유희적 성, 혼전순결, 결혼관, 성 허용성, 동성애 허용성, 낙태 허용성과 같이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 태도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 α는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쾌락·유희적 성 0.81, 혼전순결 0.82, 결혼관 0.81, 성 허용성 0.73, 동성애 허용성 0.94, 낙태 허용성 0.74 이었다.

2.3.3 생식건강증진행위

본 연구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조효윤 (201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2]. 성별에 따라 남학생용 16문항, 여학생용 총 18문항의 2종류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안전 성행위 영역, 성행위 책임감 영역, 생식기 건강관리 영역, 성병예방 영역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성의 경우 생식기 위생관리 영역이 추가되어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아주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 α는 남학생용 0.89, 여학생용 0.88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실험처치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명목척도는 빈도수로 등비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는 대응 t-검정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기법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20명의 대상자중에 탈락자를 제외한 108명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2에 표기하였으며,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20.84세였다. 간호학을 전공한 학생은 50명이었고 물리치료학을 전공한 학생은 58명이었으며, 대학 학기 중 거주지는 자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19명, 기숙사 16명, 기타(친척, 친구 집 등) 3명 순이었다. 성 관련 지식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은 편이 19명, 많은 편이 14명, 없다고 응답한 1명 순이었다. 성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많은 편이 20명, 적은 편이 6명 순이었다. 성 지식 습득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와 같은 지인을 통해 얻는 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30명,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 매체가 21명, 경험이 10명, 가족이 9명 순이었다. 이성교제는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고 응답한 27명, 과거에나 현재에나 없다고 응답한 22명,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다고 응답한 9명 순이었다. 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Mean ± SD or n
Age	20.84 ± 2.17[a]
Sex (Male / Female)	38 / 70
Major (Nursing / Physical therapy)	50 / 58
Residence (Home / Dormitory / Living alone / Others)	70 / 16 / 19 / 3
Self sexual knowledge (1 / 2 / 3 / 4)	1 / 19 / 74 / 14
Interest in sex (1 / 2 / 3 / 4)	0 / 6 / 82 / 20
Acquisition route of sexual knowledge (Friend / Family / Experience / Media / Internet)	38 / 9 / 10 / 21 / 30
Experience of dating (Yes / No)	86 / 22
Needs for sex education (1 / 2 / 3 / 4 / 5)	4 / 3 / 32 / 45 / 24

3.2 대상자의 성 지식의 변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성 지식 점수는 15.08점 이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는 15.94점으로 평균 점수는 향상되었으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p>0.05). Table 3.

3.3 대상자의 성 태도의 변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성 태도 점수는 124.85점 이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는 5.25%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01). 세부 항목으로는 낙태 허용성(2.24%)을 제외한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쾌락·유희적 성(3.99%), 혼전순결(6.31%), 결혼관(3.29%), 성 허용성(9.45%), 동성애 허용성(8.39%)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 Table 3.

Table 3. Change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participants

Variables	Mean ± SD	
	Pre-test	Post-test
Sexual knowledge	15.08 ± 4.81	15.94 ± 5.15
Sexual attitude	124.85 ± 13.08	131.39 ± 12.73*
Pleasurable sex	33.30 ± 6.13	34.63 ± 5.76*
Virgin until marriage	20.28 ± 4.90	21.56 ± 4.39*
Thinking of marriage	21.27 ± 3.40	21.97 ± 2.71*
Sex admissibility	16.18 ± 2.99	17.71 ± 3.15*
Homosexuality	15.13 ± 4.97	16.40 ± 4.54*
Abortion	18.70 ± 2.42	19.12 ± 2.30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68.01 ± 7.50	69.18 ± 10.51

* present p<0.05 compared with pre-test

3.4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변화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생식건강증진 행위 점수는 68.01이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는 1.72% 향상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0.05). 세부 항목인 안전 성행위 영역(2.54%), 성행위 책임감 영역(1.19%), 생식기 건강관리 영역(3.65%), 성병예방 영역(0.09%), 생식기 위생관리 영역(2.71%)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Table 3.

3.5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분석

성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3계가 있었으나(r=0.230, p=0.017), 성 지식과 성태도 사이와(r=0.072, p=0.461) 성 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는(r=0.111, p=0.252)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participants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Sexual knowledge	1.000		
Sexual attitude	0.072	1.000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0.230*	0.111	1.000

* present p<0.05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생식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미국에서도 학교기반 건강 프로그램(school-based healthcare)이 잘 정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식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적은 점을 살펴볼 때[23], 생식건강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은 필요하고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이성교제 경험은 과거나 현재에 있다라는 응답이 79.62%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연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의 대부분을 친구나 선후배와 같은 지인이나 인터넷 또는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었다. 성에 대한 무분별한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건전한 성 상품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24], 이와 같이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성 지식 습득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 쉽다. 그리고 음란물에 노출이 많이 된 대학생은 노출되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성인식과 성 비행 시행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는 음란물의 내용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인지와 기억 과정에서 성적 욕구나 폭력성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하지 못한 성 행동을 모방하게 한다는 점화효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26, 27]. 따라서,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식건강에 대한 교육이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집단교육보다는 사이버 강의를 선호하는 만큼 웹 사이트에서 접속 가능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Von Rosen 등 (2017)의 연구에 따라 웹 사이트를 선택할 때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인가(88.33%), 분명한 정보 레이아웃(80.57%), 웹 사이트의 신뢰성(79.28%) 순이었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3].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 지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50.26점 이었다. 이는 심정신 (2016)이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성 지식을 평가 했을 때 나온 75.7점보다 낮은 점수였다[28]. 선행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연령이 20세에서 25세 이상까지 다양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20.84세로 대부분 1, 2학년으로 보건 전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저학년 특성상 성 지식 습득 경로가 지인이나 인터넷 매체에 의존적이었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성 지식을 접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교육하여 건전한 성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단순히 생리적인 교육학적 접근보다는 피임, 임신, 성병, 성폭력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20]. 본 연구에서도 피임과 성병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대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ung과 Lin (2013)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성 건강 교육을 실시 했을 때 성 지식과 성 태도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고($p<0.05$)[29], Mounir 등 (2003)의 연구에서는 354명의 여대생에게 생식건강교육을 실시했을 때 성 지식과 성 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30]. 본 연구에서도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 태도를 유의하게 향상 시켰다($p<0.05$).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후 쾌락·유희적 성은 34.63점, 혼전순결 허용도는 21.56점으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허용성(17.71점)과 동성애 허용성(16.40점)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5$).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성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성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했다는 강효윤 (2007)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31]. 이와 같은 개방적인 성 태도로 인해 대학생들의 성관계 경험도 증가하고[32] 성병에 감염될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성 행동을 위한 교육이 요구될 것이다.

강윤선과 황혜남 (201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여학생은 성 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0.22$, $p<0.05$)[31]. 김묘성과 어용숙 (201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 지식이 높을 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r=0.20$, $p=0.002$; 여학생 $r=0.22$, $p=0.015$)[33]. 본 연구에서는 성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 지식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성 충동, 성 의식 및 피임 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성 행동이 건전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성 지식이 일반적인 보건계열 대학생의 성 지식보다 낮아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한 대학이 종교적인 특색이 있는 관계로 보수적인 성 지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이를 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얻기 원하는 성 지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선호도를 조사한 뒤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표본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생식건강증진 교육을 항상 전문가에게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Mevsim 등 (2009)의 연구에서는 동료에 의한 생식건강 교육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그리고 생식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강사의 교육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는 보다 효과적으로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 지식, 성 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 생식건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10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 태도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었고($p<0.001$), 성 지식과 생식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230$, $p=0.017$).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요구 사항을 반영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장기간 적용에 따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E. J. Kim, G. M. Kim, K. W. Choi, S. S. Kim & J. Y. Lim. (2014).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1(1)*, 60-68.

[2] J. R. Choi. (2006). Sex in Adolescence and Educational Counseling. *Theology and Mission*, 32, 359-381.

[3] A. J. von Rosen, F. T. von Rosen, P. Tinnemann & F. Muller-Riemenschneider. (2017). Sexual Health and the Internet: Cross-Sectional Study of Online Preferenc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9(11)*, 379.

[4] M. H. Jo. (2004).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Culture of Sexuality. *Student Life Research, 32*, 5-37.

[5] S. H. Kim & W. C. Yoon. (2012).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48-257.

[6] L. D. Lindberg, A. Sonfield & A. Gemmill. (2008). Reassessing adolescent mal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2(1)*, 40-56.

[7] A. V. Marcell, S. E. Gibbs, N. A. Pilgrim, K. R. Page, R. Arrington-Sanders & J. M. Jennings. (2017).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Receipt Among Young Males Aged 15-24. *Th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8] J. A. Kim & J. Y. Lee. (2014).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the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Sexual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3)*, 71-80.

[9] K. R. Shin, H. J. PARK, K. E. Bae & C. Y. Cha. (2010).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2(6)*, 624-633.

[10] KCDC. http://www.cdc.go.kr/CDC/main.jsp:[

[11] G. R. Donenberg, R. Paikoff & W. Pequegnat.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families, youth, and HIV: family-based intervention studies. *Journal of Pediatr Psychol, 31(9)*, 869-873.

[12] A. M. Karim, R. J. Magnani, G. T. Morgan & K. C. Bond. (2003). Reproductive health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unmarried youth in Ghana.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9(1)*, 14-24.

[13] O. Oladepo & M. M. Fayemi. (2011). Perceptions about sexual abstinence and knowledge of HIV/AIDS prevention among in-school adolescents in a western Nigerian city. *BMC public health, 11*, 304.

[14] V. Durongritichai. (2012). Knowledge, attitudes, self-awareness, and factors affecting HIV/AIDS prevention among Thai university students. *The Southeast Asi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43(6),* 1502-1511.

[15] P. M. Godia, J. M. Olenja, J. A. Lavussa, D. Quinney, J. J. Hofman & N. van den Broek. (2013). Sexual reproductive health service provision to young people in Kenya; health service providers' experience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3,* 476.

[16] G. S. Jeon, H. Y. Lee & S. J. Rhee.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17] G. Y. Kim & J. L. Oh. (2014). A Study of on the Sexual Knowledge, Sexual Consciousness and Values of University Student. *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5(1),* 1-13.

[18] K. R. Shin, H. J. Park, & C. M. Hong. (2010).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2(4),* 448-456.

[19] K. S. Koh. (2014). *Mediating effects of birth control knowledge in relation to effects of high schoolers' birth control self-efficacy on birth control attitude*,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20] G. H. Woo. (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isty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21] S. M. Ho.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2] H. Y. Jo, Y. H. Kim & H. M. Son. (2014).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1(5),* 29-43.

[23] A. J. Mason-Jones, C. Crisp, M. Momberg, J. Koech, P. De Koker & C. Mathews. (2012). A systematic review of the role of school-based healthcare in adolescent sexual, reproductive, and mental health. *Systematic reviews, 1,* 49.

[24] H. R. Kim & H. W. Lee. (2006). Sex Knowledge of Korean Soldiers and Their Need for Sex Educ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8,* pp.77-104.

[25] Byeon In Jeong & J. Y. Guk (2012). The Effects of Sexuality Reporting and Sexuality Exposure on Sexual Affect, Cognition, and Intention of Male College Students. *Media & performing arts, 7(3),* 30-62.

[26] L. Berkowitz. (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3),* 410-427.

[27] C. A. Anderson, L. Berkowitz, E. Donnerstein, L. R. Huesmann, J. D. Johnson, D. Linz, N. M. Malamuth & E. Wartella. (2003). The Influence of Media Violence on Youth.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 a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4(3),* 81-110.

[28] J. S. Sim. (2016). The Study on Sexual Knowledge, Contraception Knowledge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8),* 1-14.

[29] S. C. Sung & Y. C. Lin. (2013). Effectiveness of the sexual healthcar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on sexual healthcare. *Nurse education today, 33(5),* 498-503.

[30] G. M. Mounir, N. H. Mahdy & I. M. Fatohy (2003). Impact of health education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female Alexandria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Egypt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78(5-6),* 433-466.

[31] Y. S. Kang, & H. N. Hwang, (2017).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1),* No.1, 9-17.

[32] S. H. An, I. S. Park, J. S. Han, T. I. K. Kim, M. S. Kwak & H. S. Chung. (2008).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3),* 205-212.

[33] M. S. Kim & Y. S. Eo. (2015). A Study on R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Uundergraduate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1(2),* pp.140-147.

[34] V. Mevsim, D. Guldal, T. Gunvar, O. Saygin & E. Kuruoglu. (2009). Young people benefit from comprehensive education on reproductive health. *The European journal of contraception & reproductive health care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Society of Contraception, 14(2),* 144-152.

최 원 재(Choi, Won Jae) [정회원]

- 2010년 2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학사)
- 2011년 8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이학석사)
- 2015년 2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이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SMART 재활 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재활, 인지, 노인, 신경계
- E-Mail : wjchoi0223@gmail.com

박 준 혁(Park, Jun Hyuck) [정회원]

- 2012년 2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이학석사)
- 2016년 2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이학박사)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구미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 관심분야 : 신경계물리치료, 노인물리치료
- E-Mail : parkjh@gumi.ac.kr

이 승 원(Lee, Seung Won) [정회원]

- 2002년 2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보건학사)
- 2004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과(이학석사)
- 2008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학과(이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운동치료, 근골격물리치료
- E-Mail : swlee@syu.ac.kr

임 종 은(Yim, Jong Eun) [정회원]

- 2005년 8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학사)
- 2007년 2월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 2012년 6월 : 로마린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낙상, 전정재활, 이학적치료
- E-Mail : jeyim@syu.ac.kr

정 현 철(Jeong, Hyeon Cheol) [정회원]

- 1987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5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재활간호
- E-Mail : love2hc@syu.ac.kr

임 영 숙(Lim Young Sook) [정회원]

- 1988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7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중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의미요법
- E-Mail : yslim2347@gmail.com

한 숙 정(Han, Suk Jung) [정회원]

- 1988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사
- 2003년 2월 :가톨릭대학교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9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노인보건, 가정간호
- E-Mail : hansj@syu.ac.kr